

## 한국의 지식 사회, 독립적 지성은 존재하는가

김동춘

## 1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생들 대상의 강연 석상에서 “오늘날 지식인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 나는 그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오늘날 대학생이 아직도 지식인에 속하는가, 아니면 예비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이라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져 본다. 조지훈(趙芝薰)이 4·19 직후 “4년만 마치면 제군도 학사(學士)니 학사는사(士)라, 제군은 민족의 힘으로 길러지는 선비”라고 말하면서 “이 혁명을 완수하고 밀고 갈 힘이 되고 그것을 계승할 사람은 대학생밖에 없다”고 말했을 때, 당시의 대학생은 분명히 지식인의 일원이었을 것이다. “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의 일약”임을 자부하였던 4·19 당시는 물론이거니와, “대학생들은 보이지 않는 민중의 염원에 부응해 정치·사회·문화의 각 방면에서 한국 사회 내의 민족 가치 실현을 추구해야 할 책임을 더욱 지는 것이다”라고 외치면서 반(反)유신의 기치를 내걸었던 1970년대 말에도 대학생은 분명 지식인으로서의 자의식을 갖고서 그 시대의 정치적 요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아마 ‘광주’의 비극적 기억을 ‘전국민의 기억’으로 환기시키려고 군사 정권에 즐기치게 저항하면서 스스로 노동자의 일원이 되었던 1980년대 초 무렵의 학생 투사들도 지식

인과 민중의 관계에 대해 깊이 고민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 운동이 퇴조한 요즘의 대학 캠퍼스에서는 '사회의 미래를 지고 나아갈 청년', '예비 지식인' 들보다는 '오랜 입시 전쟁에서 해방되기도 전에 불 안한 장래 문제로 찌들려 있는 군상' 들을 더 쉽게 목격할 수 있다. '투사' 들이 사라진 학교에는 토론이나 힘찬 문제 제기가 사라졌고, 시 한 줄 소설책 한 권 읽지 않고, 책보다는 영화를, 영화 중에서도 명화(名畵)보다는 만화 영화를 즐기는 학생들만이 넘쳐나고 있으며, 장학금을 받아야겠으니 B 플러스 학점을 A 로 올려 주면 안 되겠느냐며 자신만 봐달라고 억지 쓰는 이기적인 행동들만 부각된다. 술주정과 폭력이 난무하는 대학의 축제 마당, 지하철에서나 버스에서 핸드폰으로 마음껏 떠들거나 강의 시간에 핸드폰을 켜 놓고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모습도 우리를 짜증스럽게 만든다. 대학이 대중 교육 기관이 되어 버린 오늘날, 부모의 과보호와 입시의 중압으로 정신 연령의 성숙이 지체된 대학생들은 어떠한 문화에도 자신의 뜻을 내리지 못하는 정신적 미아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지식인, 지성인이라는 개념은 오늘의 대학생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학문적 능력의 부족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교수로서의 인락한 지위에 만족하는 '대학 선생' 들이 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자신이 뱉어 놓은 말을 여반장으로 뒤집으면서도 아무런 해명 한 마디 하지 않고, 권력이 불러 주면 자신의 주장과 소신이 어떻든 성급히 뛰어가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지식인들, 패거리 문화에 안주해서 약간의 변화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대학 교수들이 이러한 학생들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학생들이 지배 문화의 일부로 편입되었듯이, 이제 교수나 언론인 들도 확실하게 지배 체제의 한 구성원이 된 것일까? 소매에 물이 흘러 들어가는데도 머리 숙이기 싫어서 서서 세수하기를 고집하던 신채호 선생 같은 사람들의 행동이나, 해직의 고통을 당하여 내일의 찬거리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워도 '내키지 않는 굴' 은 결코 쓰지 않았던 1960, 70년대의 언

론인이나 학자의 행동도 이제는 '역사책'에서만 찾아야 하는가? 만약 이러한 유형의 '전통적인 지식인' 들이 오늘날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 옛날 '선비'의 진영이라고 말한다면, 최저 임금 문제로 대통령과 의견이 맞지 않아 더 이상 노동부장관직을 맡을 수 없다고 물러선 미국의 로버트 라히시(Robert Reich) 같은 '자유주의' 학자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TV나 신문에는 수많은 학자, 언론인 들이 이러쿵저러쿵 우리 문제를 해석하고 진단하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 주는 신선한 시각이나 주장이 드문 것은 무슨 까닭인가? 대학은 커지고, 대학생은 넘쳐나며, 대학 교수의 숫자는 늘어나고, 자고 나면 새로운 학술 잡지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책방에 가면 과거에 그러하였듯이 여전히 번역서가 판을 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국가 대란의 상황인 IMF를 맞이하였는데도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힘찬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 문제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유교적 지식인이 목숨처럼 중히 여겼던 사(士)의 정신이나 근대 서구의 전문 직업인(profession) 윤리에 바탕을 둔 행동을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IMF를 맞으면서 정치적 토론과 비판이 사라진 정치 공간, 국가의 과제를 책임 있게 제기하는 집단이 없는 사회, 철학적 기초가 없는 무분별한 시장 논리, 이런 것들이 어떠한 참담한 결과를 가져 왔는지를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다. 경제 청문회를 보면 재경원장관도, 청와대 경제수석도, 한국은행장도 모두가 "나 모르는 일"이라 발뺌한다. 외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시점에 미국의 일류 대학에서 훈련받은 그들의 경제학 전문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자들대로, 신문 기자는 기자들대로 모두가 1994년 이후 세계화(globalization)의 미래, 정보화의 장밋빛 청사진을 선전하는 데는 앞장섰으나, 지금 와서 보면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떠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깊이 천착하지 않았으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는 소수도 용기 있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OECD에 가입하고, 시장이 개방되고, 금융이 국제화되는 상황을 겪으면서도 그 어느 누구도 시장의 개방, 외국 금융 자본의 한국 유입이 한국 경제와 사회에 가져다 줄 위험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경제학 전문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우리의 총체적 맥락 속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지적 용기였다. 그것은 기득권의 단맛을 지식에 대한 책임 의식과 너무 쉽게 바꾼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한때 나는 '무당파적인 자유부동의 지식인' 상을 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였으며, 지식인의 역할 운운하는 이야기들을 하찮게 생각한 적도 있었다. 생산자의 계급 의식이 '먹물들의 기회주의적 사고'를 쓸어 버리고 배운 사람들이 스스로 민중의 일원이 될 때 양심이니 정의니 운운하는 부르주아적 지식인의 한계를 극복해 낼 수 있다고 기대하던 무렵, '지식인' 담론이 설자리는 없었다. 그러나 한국처럼 '중심이 없는' 사회에서 당면한 정치 경제의 요구에 휩쓸리지 않고서 어떤 문제를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일, 그리고 소외층의 고통을 문제의 출발점으로 삼되 전체 사회를 보면서 그 진행과 결과를 정리하고, 그것을 정책이나 사회적 행동으로 연결하도록 계기를 만드는 지식인의 '해석적 활동'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다. 마스크의 영향이 엄청나게 커졌고, 이성보다는 감성이 지배하며, 열정보다는 타산이 앞서고, 정보가 지식을 대신하며, 영상 문화의 보급이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즐기는 사람'을 더욱 보편화시키고는 있지만, 당면한 정치 경제 질서를 정당화하거나 그것을 비판하는 활동은 여전히 우리 삶의 조건을 좌우하는 데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학(생)과 지식인 사회가 이렇듯 '정신 활동'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어디에 기인하는 것일까? 저무는 1990년대에서 있는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지식인의 역할이 요구된다면, 그것은 어떤 연유이며, 또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 2

에드워드 쉘즈(Edward Shils)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식인은 '타락한 성직자'라고 말했다. 그는 다분히 지식인을 과학주의, 낭만주의, 혁명주의, 민주주의 등의 이데올로기로 무장하여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무책임한 존재라고 보았다. 거기에는 자율성을 빌미로 한 선동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자본주의나 기술 관료 엘리트를 비판하는 구 인문주의의 잔영들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즉 오늘날 지식인이라는 존재는 그 행위가 옛날식으로 말하면 '백성들에게 천국을 약속하며 생계를 부지하던' 성직자의 기능과 같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식인의 기능이란 세계에 대한 해석자로서의 역할이며, 과거 자본주의 이전에는 성직자나 승려가 주로 수행했던 역할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중간층 지식인이 그러한 역할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 영혼의 관장자, 혹은 생명과 안녕을 좌우하는 특별한 존재로서 유럽의 승려가 바로 세속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생명과 길흉화복을 좌우하는 교육, 의료, 재판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유교적 질서하에서는 오히려 지배 질서가 인문주의적인 유교 도덕에 기초하고 있었고, 지배 질서 밖에 존재하는 문필가로서의 독립된 지식인의 활동 공간이 있었다. 처사(處士)로 불린 이들 독립적인 지식인은 유교 도덕을 견지하는 점에서 지배 집단의 일원이었으나, 과거를 통해 관리가 되려 하기보다는 인격의 수양과 독자적인 학문 체계를 세우고 이를 교육을 통해 실천하려 했다는 점에서 중세 유럽의 성직자와는 다른 부류의 지식인이었다. 즉 중세 서양의 성직자와 달리 조선에서는 의료, 법률과 같은 기술적 지식은 낮은 신분의 사람이나 관리들이 부분적으로 수행하였으나, 교육 기능은 바로 이들 독립적인 지식인이 가장 중점을 두는 사업이었다. 즉 동양에서는 배운 자와 단순한 지식 혹은 기능을 가진 자는 구분되어 있었던 셈이다.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직업인이 아닌 사람이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지식인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상황의 해석자, 관념의 창출자로서 지식인에 대한 역할 기대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근대화의 과정은 바로 국가나 자본가 계급이 전통적 지식인을 대체하는 새로운 유형의 기능적 지식인을 창출하는 과정이었다. 즉 과거 유럽의 봉건 제후가 성직자를 마치 우리 나라의 왕이 유교적인 관리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로 한 것처럼, 근대 지배 계급인 자본가는 '과학', '시장 유포피아' 라는 신흥 종교로 무장한 새로운 기능적 지식인을 필요로 하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술자, 관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진 전문가는 지배자의 하위 파트너가 되었다. 의사, 법률가, 공학자, 경영자, 주류 경제학자가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학 유포피아', '시장 유포피아' 를 자신의 활동을 통해 선전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 기능인이다. 이 경우의 지식이라는 것은 과학을 무기로 한 세상에 대한 지배와 장악, 세상이 갖고 있는 비밀의 문을 여는 실용적인 능력이며, 이들이 갖는 권위는 바로 세계에 대한 이들의 정당화 능력,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처리 능력에 기초한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기능적 지식인 혹은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는 지식인은 근대적인 대학 교육 제도를 통해 만들어졌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식인이라는 존재는 지식을 갖추어서 그 지식의 힘으로 권력이나 자본가의 서기 노릇을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 세계를 해석해 주고, 그것을 대중에게 유포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기능적 지식인도 넓은 의미의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더 넓게는 그람시(Gramsci)가 말했듯이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는 다 지식인이다. 그러나 국가 교육 체제의 수립과 국가의 자본에 대한 의존으로 특징지어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문성을 갖춘 '지식' 이라는 것은 바로 관료 체제나 기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지식의 생산과 유포 과정에서 자율성과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자본주의 내 전문가 집단은 지식인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 기능인, 기술 관료와 지식인이 구별되는 것은 바로 이 점에 있다. 예를 들어 1960년대 한국의 신문 기자 중 일부가 소신과 주장을 갖춘 독립적인 필자로서 필봉을 휘둘렀는데 1990년대 기자들의 일상 활동에서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면, 그것은 바로 언론 기관이 곧 기업 활동이 되었기 때문이며, 신문 기

자의 활동이 점점 더 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에 종속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1960년대 한국의 교사가 전통적인 교육자처럼 나름대로 교육관을 갖춘 교육자였는데 1980년대 이후 학교 현장에서 그것이 불가능해졌다면, 이 역시 교육 활동에 대한 국가의 독점이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본다면 지식인이라는 존재는 분명 근대의 산물이지만, 동시에 자본주의적 사회 관계에 본격적으로 착근(着根)하기 이전, 즉 근대화로의 진통기간에 그 위상과 역할이 부각되는 존재이기도 하다. 우리는 과거 유럽이나 동양 사회처럼 근대 이전의 역사 단계에서 '전통적인 지식인' 이 하나의 사회적 범주로 존재한 경험이 있고 나름대로의 실천적 입지가 있었던 나라가 근대화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지식인을 창출해 내는 예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이 애초부터 성직이나 귀족의 전통이 없는 나라에서는 현실의 해석을 관장하는 보편주의적인 지식인이 출현하기보다는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에 부응하는 실용적 지식인 혹은 기능인이 더 지배적인 범주가 되었다. 파슨스(Parsons)가 그토록 강조하였던 바 직업주의의 덕목은 바로 보편주의적인 정신을 견지한 독립된 지식인이 설 기반이 없는 미국의 시민 도덕 상황을 가장 잘 보여 준다. 이 경우 지식인은 지배 계급의 일원이 되어 버리고, 지배 계급의 물질적인 재생산 과정과는 분리된 독자적인 의견 집단의 설자리는 크지 않다. 대학이 인문주의적인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두는가, 그렇지 않으면 직업인과 전문인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두는가 하는 점도 바로 이러한 전통과 연관되어 있다.

독립적 지식인이 활동할 수 있는 문화적인 전통과 공간이 있는 사회에서 정치 사회 질서의 비판자로서 지식인이 탄생한다. 물론 이러한 사회에서도 대다수의 대학 교육 이수자들은 체제를 정당화하는 편에 선다. 그러나 그들이 서 있는 현실, 그들이 추구하는 '진리'와 지식이 기성 질서의 정당화 논리와 심각한 괴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교통스럽게' 자각하는 소수의 비판자는 '전통적 지식인' 상의 문화적 세례를 받아 비판적 지식인으로 변신한다. 즉 대중의 경험 세계와 지배 집단의 정당화의 논리간의 괴리, 정당화의 논리가 갖는 자기 모순성, 이들

이 교육을 통해 얻은 자유주의 혹은 인간주의의 교양과 기존 질서와의 심각한 마찰, 또는 소외된 층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 등이 복합되어, 이들 지배 계급의 일원 혹은 서기로서 출세의 길을 모색하던 전문가나 지배 질서의 외곽에 흠어져 존재하던 자유로운 사색가들은 점차 체제의 비판자로서 등장하게 된다. 이들 전문가, 교양인, 사색가, 종교인, 문필가들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정신적인 괴리, 자기 분열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들이 새롭게 견지하는 비판의 논리는 유토피아의 성격을 지니기 쉽다. '아편'을 '문명'이라고 강변하는 식민지 지배 질서, 독재를 민주주의라고 가르치는 국가에서 이들은 급진적인 체제 비판자가 되기도 한다. 19세기에서 20세기 중반에 이르는 시기는 바로 이러한 유형의 지식인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한 시기였다. 후발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르주아 출신 지식인들이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혁명가로 변신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자본주의 경제 질서는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지식의 생산과 발표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기 때문에, 지식인이 숨쉴 수 있는 공간은 자본주의 사회 관계의 착근 정도와 맞물려 점차 좁아지는 경향이 있다. 극단적으로 말해 분업이 고도화되어 모든 사람이 직업인이 되고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의 사회가 되면, 이제 '시대의 해석자'로서 보편주의 정신을 견지하는 지식인은 설자리가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직업 세계 속에서의 지식은 풍부하나, 그 세계를 벗어나서는 무지한 존재가 된다. 결국 현대 자본주의 문명은 바로 모든 사람을 이러한 기술적인 직업인으로 변화시키는 체제이고,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가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술주의, 과학주의라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의 종교이고, 그러한 종교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설득이나 해석은 불필요하게 된다. 왜냐하면 생명은 의학의 발전이 해결해 주고, 생활의 고통은 물질적인 성장이 해결해 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제 철학자는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옛날 사람들의 철학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밥을 해결해야 하며, 문필가는 억만장자가 된 기업가의 전기를 써 주는 전



기 작가로 변신해야 하고, 학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경영 기법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면서 생존을 도모해야 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지 않는 역사, 철학, 문학을 탐구하는 사람은 굶어죽기를 각오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치고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달래 주고 그들의 휴식 시간을 때워 주는 대중역사, 대중 철학, 대중 문학을 생산하는 존재로 만족해야 한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점점 더 이 사회에서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 버린다 다니엘 벨(Daniel Bell)이 미국에서 지식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세대 뒤로는 없다고 말한 것이나, 자코비(Jacoby)가 『마지막 지식인』에서 1960년대 미국의 반전 세대가 지식인이 되지 못하고 체제와 맞물려 돌아가는 직업인이 되어 미국의 보수화에 일조하였다고 한탄한 것도 바로 이를 말해 주는 것이다.

### 3

일찍이 한국의 대표적인 우익 언론인이자 문인이었던 선우휘(鮮宇揮)는 “한국의 지적 풍토는 한 마디로 지극히 래티컬하다. 그 사고가 근원적일수록, 그 행동이 과격할수록 더 잘 받아들여지는 풍토다”라고 탄식한 바 있다 그는 “지성은 반드시 반항을 뜻하며, 그 행동은 반드시 현실 부정적인 것이어야 하는가?”라고 물으면서, 끝내 “나는 왜 한국의 지식인이 그렇게 래디컬한지 이해할 수 없다”고 답을 내리고 있다. 아마 한국에서 반공주의나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와 비슷한 의문 혹은 불편한 심정을 가졌을 것이다 군사 독재 시절에는 적어도 반정부적 행위로 교도소 한 번 가보지 않고서는 어디 가서 명함을 내놓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식민지 이후 우리의 지배 질서는 친일파, 군국주의자, 친미파, 반공주의자들이 이끌어 왔고, 이들이 돈과 권력의 단물을 마음껏 누리 왔지만, 그들은 살아 있을 동안에도 정신적으로는 전혀 존경을 받지 못하였으며, 죽어서는 다산 정약용이 말했듯이 “시체가 미처 식기도 전에 그 사람이 있었던가”도 기억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반면에 일제 시기 이래 살았던 사람 중에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거나 존경할 만한 인물로 추앙받는 사람은 하나같이 죽도록 고생한 사람들이었고, 살았을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

권력과 돈의 단물을 누린 사람은 왜 존경받을 수 없는가 항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형식 논리적으로는 편하게 살면서도 존경받을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역사에서, 특히 한국과 같이 고난의 현대사를 겪어 온 사회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했다. 즉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세우려는 사람, 민족과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려는 사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르치거나 글로 쓰려는 사람은 예외 없이 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받았으며, 설사 직접적인 탄압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계 유지의 절박한 요청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애초에는 옳은 생각을 갖고서 출발한 사람도 변신과 궤멸, 전향의 과정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에서는 자유주의자이건 마르크스주의자이건 독립적인 지식인이 된다는 것은 투사가 되는 길이었다.

그러므로 선우회가 품은 의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다. 만약 일제의 식민지 체제가, 한국 전쟁통의 남북한의 위성자들이, 분단 이후 남한의 권력자들이 자유로운 사고를 추구하는 지식인이 설 수 있는 자리를 조금만 마련했다 라도 단지 래티컬하다는 이유로 존경하거나, 반대로 보수적 생각을 갖는다고 비판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 동안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권력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지배자들은 '생각하는 사람' 들을 대우해 주기는커녕 그들의 '회의주의' 를 못 견뎌 하였고, 인간의 사상과 양심을 통제하는 죄악을 저질렀다. 이 점에서 박정희가 저지른 죄과는 대단히 큰 것이다. 그는 '데모'의 비애국성, 언론의 무책임성, 지식인의 응징성을 질타하면서, 스스로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책임 지는 존재라 자임하고서 다른 방식의 애국의 길을 봉쇄하였다. 학생들은 심심해서 데모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은 기사거리가 없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며, 지식인은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지 않아서 군사 정권에 협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히틀러가 그러하였듯이 독재자들은 언제나 '책임성'이라는 명분과 자신이 지식을 독점하고 있다는 자만 위에, 사색과 토론을 통한 진리의 추구, 합의와 설득을 통한 대중적 지혜의 창출을 두려워한다. 그런 다음 그들은 학생, 지식인, 언론이 두려워서 침묵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침묵하는 것으로, 먹고살기 위해서 협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군사 정권이 우리 역사에서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바로 일제 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어떤 자생적 이념이나 사상도 만들어 내지 못하는 불구적인 존재로 위축되어 버린 지식인들을 권력의 힘을 통해 또 한 번 죽인 것이었으며, 그들에게 생각할 공간을 남겨주기보다는 권력과 금력에 굴종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소시민의 철학'을 심어 주었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카데미즘, 혹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사고라는 것은 대다수 국민이 절대적인 빈곤과 고리채에 신음했던 1960년대 초의 상황에서는 일종의 사치였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한 환란을 당한 조선 시대에도 임금이 산중 처사의 지혜를 구할 때는 장사꾼을 대하듯이 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이들 역시 밥을 먹어야 하는 존재이기는 하나, 돈과 권력의 힘으로써 이들을 유혹하는 것은 참 배움과 지식을 추구하는 이들에 대한 인격 모독이었기 때문이다. 세상을 다스리거나 돈을 벌어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처지에 있는 앎는 지식인이 당면의 현실에 대해 '무책임'한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그러나 '책임성'을 현행 질서 유지에의 기여나 당장의 가시적 이윤 창출로 해석할 경우, 오늘의 질서 유지는 내일의 더 심한 무질서로 나타날 수 있고, 오늘의 이윤은 내일의 고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권력의 힘으로 올려대고 돈으로 유혹하면 넘어가지 않을 장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비극은 시작된다. 모두가 타락하고, 변절하고, 모든 사람이 상식보다는 단기적 이익과 편의주의에 호소할 때, 누구도 자신의 목소리를 외치지 못할 때, 사회는 붕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근대, 한국의 자본주의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사실 일본에 협력한 이광수와 최남선은 조선의 천재였으며, 박정희 정권이 이

후에 평가교수단의 일원이 되고, 국민교육헌장을 기초하고, 장관이 되고 정치가가 된 학자, 지식인 들은 당대에는 가장 우수한 인재였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우수한 인재들이 민족의 장래, 사회의 장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지 못하고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민족이나 사회를 잘못 이끌지도 모르는 권력의 서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 역사의 비극이라 하겠다 자신이 협력했던 정권이나 지도자가 무너졌을 때, 그들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폐인이 되었다 그것은 이들이 정치에 참여했기 때문이 아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소신과 무관하게 정치에 참여하고 지배 세력에 협조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의 정치 참여, 정부에의 협조가 자신의 평소 생각이나 소신을 떠는 기회로서 활용되었더라면, 그들은 다시 대학으로 되돌아와서 학문적인 업적을 쌓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일본의 개화 선각자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왜 일본의 독립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학자들이 관리가 되기보다는 민간에서 독립하여 학자로서 활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지식인의 정신적 파탄은 개인적 불행으로 그치지 않고 지식인 일반, 나아가 사회 전체를 폐허화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일제 시대에도 이광수와 최남선의 변신을 본 지식들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회의하고 자학하였다. 그들이 돌아서는 것을 본 평범한 상식인들은 정치에 등을 돌리고 허무주의에 빠졌으며, 다른 편으로는 “살아남는 것이 진리”라는 한국식 생의 철학을 내면화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이 신문에 나고 TV에 얼굴이 자주 나오면 “아, 저 사람 곧 정치권으로 가겠구나”라고 짐작한다. 정치권으로 간 다음 그의 행동에 대해서는 누구도 질책하지 않는다. 이러한 짐작의 이면에는 “당신이 콩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나는 나의 길을 간다”는 지식 분자에 대한 엄청난 불신, 정치가나 권력자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에 기초한 허무주의적인 다짐이 동시에 존재한다. 여기서 교육과 설득은 필요없다 학교에서는 “교통 신호를 지킵시다”라고 배웠지만, 신호를 지키는 사람이 덕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키지 않겠다는 보통 사람들의 다짐, 바로 그것이다.

박정희를 비롯한 군사 정권이 지식인을 능멸하고, 권력의 힘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간파한 영리한 지식인이 그러한 질서에 편승한 결과는 바로 오늘의 문화적·도덕적 위기, 나아가 정치 경제의 위기로 현상화되고 있다. 책임성을 독점하겠다는 지배자들의 언명은 진정으로 책임 지려는 사람을 사회에서 없애 버렸다. 선거에서 승리를 지상 목표로 하는 정치가, 공무원의 무책임과 무소신, 상상을 초월하는 부패와 부정, 돈을 받고 동료들을 채용해 두는 대학 교수의 도덕적 타락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날 한국이 문화 후진국이 된 것도 바로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체계화하고 그것을 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앤 결과, 그들을 기회주의자로 만든 결과, 대학을 국가의 부속품으로 여긴 결과가 아니고 무엇인가?

한국 지식 사회의 황폐화란 바로 지배의 편에 서면서도 상대적인 독립성을 갖고서 지배 질서를 옹호해 주는 양심적인 자유주의자의 부재, 바로 그것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진리를 찾는 사람은 투사가 되었고, 이들 투사는 래티컬한 사상에 더 매력을 느꼈다. 일제나 대한민국이 만든 대학은 식민지 질서, 분단 질서, 자본주의 질서를 옹호하는 지식인을 길러 내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그러한 기관에서 교육받는 일부 사람은 체제 비판적인 지식인이 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

#### 4

그렇다면 이처럼 지난 시절 정부를 비판하고, 감옥에 간 사람들이 귀감이 되는 지식인이었는가? 1960, 70년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선 학생과 지식인은 한국 지식인의 이상형인가?

물론 투옥과 해직을 각오하면서 반정부 성명을 내고 남북을 오가며, 억압받는 대중과 함께한 문인, 학자, 종교인들은 그래도 우리 역사를 발전시킨 장본인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스스로 민중의 일원이 되어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1970, 80년대의 학생 출신 노동 운동가들이야말로 자신이 견지한 철학

과 이념, 세계 인식을 실천으로 옮기려 했던 존재였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비판의 논거, 행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관된 입장과 사상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러한 행동은 일시적인 변화를 가져 오는 데는 기여할 것이나, 궁극적으로 자신과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정치권으로 진출한 과거 많은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이 우리에게 보여 주는 무기력한 모습과 아름답지 못한 행동들, 사회의 씨줄과 날줄에 얽혀서 이상을 뒤로한 채 살아가고 있는 1970, 80년대 학생 운동 세대의 모습이 그것을 잘 보여 준다. 이들이 한때 보여 주었던 비판과 실천이 우리 사회의 변화에 기여했다는 점을 자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것은 너무나 아전인수적인 자위에 불과하다고 본다 나는 이들이 그 후에도 어떤 형태로 목소리를 내거나 계속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반드시 이들이 엄청난 정치적 억압을 받았거나 생존의 압박을 느꼈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지식인에게는 생명과 다름없다고 할 바로 지식의 내용, 생각의 내용이 부재한 데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래디컬한 지식인 역시 우리 역사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행보 역시 한국의 지식 풍토, 대학 사회, 교육 체제로부터 길러졌음에 틀림없다.

사실 공부 안하는 대학생, 공부 안하는 교수, 공부 안하는 공무원, 공부 안하는 정치가의 모습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50년대 한국 대학가 서점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연애 소설과 법률 서적이었으며, 그것에 대해 당시의 학자들이 개탄하는 글을 여기저기서 읽을 수 있다. 1960, 70년대의 대표적인 지식인인 송건호 선생은 “지금의 대학생은 대체로 독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 경향이다 공부방이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노트 몇 권, 학과에 필요한 교과서, 참고서 몇 권 꽂혀 있고, 어쩌다 달 목은 잡지가 두어 권, 아니면 요즈음 베스트셀러라고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 묘한 이름의 책 한두 권이 꽂혀 있는 정도이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미 기성 세대가 된 오늘의 30, 40대는 옛날에는 모든 대학생들이 다 열심히 독재 정권에 반대하여 데모하고, 모두가 국가와 민족의 장래

를 염려하면서 정의감에 넘쳤던 것으로 과거를 미화하는 경향이 있지만, 내가 아는 바 그것은 상당한 과장이다. 권력의 서슬이 시퍼럴 때 경찰에 잡힐 것을 각오하고 데모에 나선 학생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으며, 대다수의 학생은 당시의 유인물에서도 질타하고 있듯이 “카드 놀이와 미팅에 열중했으며 학내 사태에 무관심한 채 극히 실존적이고 개인적인 문제에만 매달렸다”

교수들 공부 안한다는 이야기도 1960년대 이후 오늘까지 줄곧 나온 소리였다.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돌아온 젊은 교수들 중 일부는 초기에는 열심히 공부하지만, 자신이 배워 온 것을 풀어서 먹고살 수 있는 기간인 5년을 넘긴 후에도 계속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연구하는 교수는 거의 없었다. 원로 교수 중에서 젊은 학자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은 매우 드물었다. 학생들은, 과거에도 그랬고 요즘에도 그렇지만, 주로 젊은 교수의 강의를 찾는데, 그 이유는 그래도 젊은 학자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때 젊은이로서 폐기만했던 교수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학생들의 인기를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가르치면서 야단 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우리 학계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드물다. 교수에게 필요한 것은 인격 이전에 학문인데, 끊임없이 가르칠 내용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교수가 스승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야스퍼스(Jaspers)가 말한 것처럼 “학생들이 훌륭하지 못한 학교에서는 최고로 훌륭한 교수도 무기력해진다”고 본다면, 취직과 출세만이 관심거리인 학생들에게 대석학이 나타날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는가?

한국처럼 유별나게 학생들이 공부 많이 하는 나라가 없는데, 공부해야 할 사람이 공부를 안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인가? 그것은 한국에서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은 입신출세를 위한 지식의 축적 외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격증과 졸업장을 따기 위한 공부였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것은 입신출세에 필요한 지식 외의 지식, 즉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역사와 사회를 어떻게 바로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서 출발하는 공부는 애초부터 매우 희귀했다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대학은 입신출세의 발판이었지, 학문의 전당, 토론의 무대, 사상의 진원지로 기능한 적이 없다. 1960, 70년대는 장차 사회에 나가서 필요한 사림을 얻고 졸업장을 따는 곳이었으며,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말까지는 반정부 투쟁의 근거지이면서 졸업장 따는 곳이었고, 1990년대 들어서는 다시 졸업장 따는 곳으로서 건재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대학사를 쓰려는 사람은 데모의 역사 외에는 별로 쓸거리가 없다. 우리 나라 대학의 역사는 지식의 역사가 아니다. 대학에는 지식인이 존재하지 않았다. 설사 대학 교수 지식인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잡지 등 학교 밖의 매체나 조직을 통해 역할을 했지 교수로서 역할을 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한국에서 대학의 권위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서울대학교나 고려대학교에서 데모가 많이 일어난 것은 정치 현실에 민감한 학생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 대학의 교수나 학문적 분위기 혹은 학풍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었다.

1990년대 들어서 학생 운동이 급격히 쇠퇴하고 데모에 참가했던 학생들도 쉽게 생각을 바꾼 것 역시 이제 상품의 질서가 한국에 본격으로 착근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지만, 되돌아켜 보면 지난 시절 대학과 대학생들, 나아가 지식 사회가 걸어온 궤적의 귀결이라고도 볼 수 있다. 지난 시절 학생들의 의식화 과정은 선배들에 의한 사상의 주입이지,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의 배양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들은 왜 정부에 반대해야 하며, 자본주의는 왜 나쁜 것인가를 스스로의 논쟁과 치열한 탐구를 통해 깨닫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민족해방파(NL)는 계급론을 공부하지 않았으며, 민중민주파(PD)는 우리의 역사 문화와 민족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이들은 상대방의 주장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세우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주장만 독백처럼 반복하는 훈련을 받고서 데모하러 나갔다. 실존적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사상적 지침을 갖지 않은 채 얻은 철학 지식은 그들의 삶의 지표가 되지 않았다. 고등학교 때까지 주입식 교육을 받았듯이 대학 들어서도 선배들로부터 주입식 교육을 받았다. 그리하여 그 많은 학생 운동가가 배출되었건만, 운동의 경험을 새로운 지



식 체계의 수립으로 연결시킨 운동가는 거의 없었다.

대체로 투쟁은 용감하고 자랑스러웠으나 사고는 너무 단순했다 생각은 하늘에서 맴돌았으나 생활은 관습과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권력을 비판했으면서도 너무 쉽게 권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대중들을 변화시키려 했으나 오히려 변한 것은 그들이었지 대중들이 아니었다 마루야마 마사오가 일본의 좌파를 향해 비판했던 것처럼, 한국의 래티컬들은 “넓은 의식이나 인간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 손쉽고 빠른 길이라 생각하였으나”, 그러한 행동들은 운동이 퇴조하는 시점에 와서는 뺄어폰 복수가 되어 그들에게 다가왔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실천이 중요하지만, 실천을 위해서는 더 튼튼한 기둥이 필요했다

이 점에서 나는 얼치기 서구화, 사상적·지적 전통의 단절이 우리 지식 사회에 원죄와 같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일본 제국주의는 전통적인 유교적 지식인의 단점은 물론 장점까지도 무참하게 짓밟았다 미군정의 진주와 한국전쟁은 미국적인 것을 보편적인 것으로 이해하도록 만들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일제의 통치와 한국전쟁과 분단은 지식인을 기회주의자로 만들었다 자신의 조그마한 생각을 펼 수 없는 사회,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지 깊이 천착해 볼 수 없는 사회에서 배운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로, 자신이 서 있는 입지를 살피려는 지적 용기를 갖기보다는 서구의 논리를 빌리는 전문가로서 자축하였다. 학문 사회는 서구, 특히 미국의 대학에서 배우고, 한국에 와서는 그것을 전파하려는 사람들이 이끌어 가게 되었으며, 그들로부터 배운 학생과 비판적인 청년 지식인 역시 그러한 사고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자유’의 개념, ‘민주주의’의 개념, ‘계급’의 개념은 우리 사회의 맥락 속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된 적이 없다.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근대적 개념들은 파괴와 비판의 이념으로는 작용했으나, 건설과 교육의 이념으로는 체화되지 못했다 1950년대 말 이후 수천 명의 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고, 그들이 돌아온 1960년대에 우리 사회에서는 서구의 자유주의를 학습한 학자들이 넘쳐났지만,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근본에서부터 옹호하면서 군사 정권을 반대한 사람은 거

의 없었다. 역설적이지만 군사 정권의 억압에 반대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서구 자유주의의 세례를 받지 않았던 민족주의자, 민족주의로 무장한 종교인들이었다 결국 우리에게 자유주의는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상 혹은 지식이 아니었던 셈인데, 그것은 바로 자유의 이념이 우리의 존재 조건, 사회 상황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의 산물이 아니라, 그러한 존재 조건을 잊어버리기 위해, 절망과 허무에서 탈출하기 위해 택한 도피처로서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자유'의 개념과 '민주'의 개념은 학문적인 용어로만 사용되었으며, 사상으로서 철학으로서 현실의 해석 체계로서는 거의 천착되지 못하였다

구체에 매개되지 않는 '보편'은 삶의 철학으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생경한 관념의 나열로 그친다 위기가 닥치면 그러한 관념들은 관습과 편의주의에 자리를 양도한다 독립의 체험, 자유의 체험, 텍스트를 통해 생각의 밀착을 얻은 경험이 없고,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문화적인 자신감과 용기를 갖지 못한 이들 불행한 지식인은 권력과 자본의 엄청난 흡인력에 쉽게 빨려 들어가 버린다. 그리하여 한때 빛나는 현실 참여의 경력을 가진 한국 교회의 신학이라는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세상을 뒤집을 것처럼 기세가 등등했던 1980년대 변혁의 이념은 이제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

## 5

신생 국가에서 지식인의 영향력은 최초의 근대화 혁명기, 즉 국가의 건설기를 지나고서는 지속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이데올로기적 지도력 대신에 전문적인 식견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일 것이다. 역사에 대한 책임감과 소명 의식 대신에 법과 행정의 합리성과 전문성이 중요해 지고, 과거 지식인이 갖고 있었던 총체적 사회 변혁의 요구와 해석은 이제 관료 기구나 정당, 대학에 스며들어 각 부문 영역의 제도나 기구를 움직이는 정신과 정책으로 구체화되기에 이른다.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켜 보면 지난 30년간의 군사 독재 기간, 아니 3 1 운동

이후 80년 동안의 학생 운동시는 바로 지식인으로서의 학생의 근대 국가 건설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을 민주화 투쟁으로 내몬 것은 전문성과 식견이 아니라 양심과 도덕, 책임감과 소명 의식이었다. 그것은 근본이 서 있지 않은 사회에서 근본을 세우기 위한 운동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초기의 변혁적 지식인의 제도 내화, 즉 통일된 근대 국가 건설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는 채 '만물이 상품화되는' 1990년대를 맞이하였다. 즉 1987년 이전까지의 민주화 투쟁과 민족 통일 운동이 일종의 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혁명적 운동의 연장이었다면, 그러한 운동의 성과는 1987년 이후의 민주화 과정에 제대로 착근, 제도화되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조건에서 자본의 세계화, 신자유주의, 신세대와 소비 문화의 출현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대학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면, 어떠한 자생적 이론이나 학문적 전통을 수립하지 못한 채 출발한 한국의 대학은 이제는 "상품 가치가 있는 성과물과 사람을 만들자"는 상업주의와 경쟁의 논리에 사로잡히기 시작하였으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개념도 수립하지 않은 채 지탱되어 온 관료 조직은 이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작은 정부론'의 이데올로기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직 민족 문학, 민중 문학도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는데, 이제 '말장난과 기교'만으로 채워지는 신춘 문예 투고작들은 예술성과 사상적 깊이를 가진 문학의 시대는 지났다고 말한다. 사상은 없었는데 사상의 시대는 지났다 하고, 지식이 없었는데 지식의 시대는 가고 정보의 시대가 왔다고 하며, 지식인을 찾기 어려웠는데 이제 지식인의 시대는 가고 전문가의 시대가 왔다고 한다.

이데올로기와 소명 의식으로 무장한 총체적 변혁을 지향하는 지식인의 시대는 지났다는 점에 대해서 나도 어느 정도는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전문화되고 직업 윤리가 확보되어 있는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도 노암 촘스키(Noam Chomski)와 같은 지식인은 사회의 양심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부르디외(Bourdieu)를 비롯한 학자들이 가두에서 실업 문제

해결을 외치고 있다. 이들은 기술 관료나 직업인이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진다는 명분하에 괴롭치하게 진행되는 국가의 부도덕과 부정의를 고발한다. 사르트르(Sartre)가 강조했던 “지배자의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비판적 지식인의 입지가 좁아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고도로 자본주의화된 사회에서도 그들의 역할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을 뿐더러 새롭게 강조되는 측면도 있다. 그것은 바로 ‘일차적인 인간’, 소비의 주체로 호명되고 있는 인간들에게 자신을 인간으로 그리고 삶의 주체로 되돌아보게 만드는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혁명의 전위인 지식인이 당의 관료가 되었을 때 소련 사회주의의 붕괴는 예고되고 있었으며, 지식인을 자본의 노예로 만든 오늘의 자본주의는 심각한 정당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 모든 사람이 소비와 기호에서 동질화되는 사회에서는 이단자가 필요하다. 그들은 다른 세계의 존재를 보여 줄 수 있는 존재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식인이 완전히 독립적 존재가 되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만, 그들이 지적 독립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지배 질서를 뒤흔들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러한 동시대적 과제 이전에 여전히 근본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 역사의 발전 단계는 중첩될 수는 있으나 비약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소화되지 않는 개념과 관념의 편린들을 주무르면서 우리의 물질 문명과 정신 세계가 부정합적으로 지탱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그 동안 수입되어 온 제도와 개념 들인 ‘국가’를, ‘민족’을, ‘시장’을, ‘자유’를, ‘평등’을 우리의 것으로 고려하면서 선택해야 하는 큰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체에서 출발해서 보편의 정신을 갖는 지식을 만들어 내는 일이다. 언론이 전 통적인 지식 생산적인 대학을 압도하고, 오락과 소비 문화가 젊은이들의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오늘에도 인간의 삶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현재가 역사에 의해서 다분히 좌우되는 한 생각하는 집단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집단에 의해 생각들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사고의 중심이 하나일 필요는 없으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사고히는

사람은 정당에도 기업에도 노동조합에도 언론사에도 정부에도 시민 사회 단체에도 필요하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고하는 사람을 길러 내는 대학 혹은 제도권 외곽의 지적인 서클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 또 대학 혹은 지적인 서클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일관되게 사고하는 지식인이 존재해야 한다. 이들 일관된 입장이나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야 비판이 가능하고 토론이 가능하며, 비판과 토론이 있어야 대안이 만들어지고, 더 심오한 생각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일관된 생각을 갖는 사람이 수백, 수천일 필요는 없고 또 소수여도 좋다. 그러나 지식 사회의 문화적 토양이 없이는 이러한 소수가 만들어지지 않으며, 때로는 소수의 생각이 전 사회를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식인 개인의 인식과 실천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상표'의 질서를 비판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신지식인, 구체와 보편을 결합할 수 있는 신지식인, 얼치기 서구화와 돌진적 근대화 과정에서 맹목적으로 수용해 온 개념들을 하나하나 비판적으로 재해석하여 우리의 것으로 소화하는 능력을 가진 신지식인, 문화적 실천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서 총체적 시야를 놓치지 않는 21세기형 신지식인의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학생 운동은 바로 그러한 지식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학술 문화 운동이어야 하며, 사회 운동 역시 교육 운동이자 문화 운동이어야 한다. 그런데 여타의 운동이 그러하듯이 그것은 바로 정치적인 투쟁일 수밖에 없을 것이며, 대학 사회, 지식 사회와의 투쟁이고, 곧 자신과의 투쟁일 것이다. □

김동춘은 1959년에 태어났으며,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 동대학원 사회과학부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있다. 저서에 『1960년대의 사회운동』(공저), 『한국사회 노동자연구』, 『한국 사회과학의 새로운 모색』 등이 있다.